제 82 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메이지 일본의 번역과 근대

최경옥 (성균관대학교 강사)

일본 번역의 역사는 장군이었던 도쿠가와 요시무네(徳川吉宗)와 유학자 아오키 콘요(青木昆陽)의 주도로 시작된 난학(蘭學)에서 출발한다. 페트호 사건(1808)이 계기가 되어 일본 통역사들이 처음으로 네덜란드 통역사를 통해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다. 이후 페리의 내항(1853)으로 일본내 영어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다. 일본에서의 영어 융성기는 중국에서 출판·간행된 것을 일본어로 다시 번역하는 작업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영어번역물들은 개성소(開成所)를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간행되었다. 1864년 영문법서 발간 이후 많은 번역어(개념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1874년 발족한 메로쿠샤(明六社)를 중심으로 한 번역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당시 메로쿠샤 회원들은 근대 서양문물을 받아들임에 있어 자유민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쪽과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는 쪽으로 양분되어 있었다. 모리 아리노리(森有礼)[영어채용론 주장, 독일교육사상 수용],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국가주의 관점에서 민권에 관심을 가진 개화론자], 니시 아마네(西周)[일본의 부국강병 주장] 등은 국가주도파에 속한다.

근대 문명수용과 관련된 번역의 쟁점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첫째, 메로쿠샤가 민권중심派와 국권주의중심派로 분열되어 해산된다. 둘째, 1870년대 중반을 전후로 주요 번역저작물의 관점이 전반기의 공리주의에서 후반기의 사회진화론(강력한 국권론적 사상)으로 변화한다. 셋째, 국권론이 서양 사상의 주류로 등장한다. 특히, 이노우에코와시(井上毅)는 일본의 근대화를 위해 국가중심적인 독일의 사상을 수용할 것을 주장했다.

번역어의 한 예로 Individual 이 個人으로 번역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일본의 번역어는 중국으로부터, 한국의 번역어는 일본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대역사전을 조사해보면 Individual 에 대한 번역은 單一個(1800년대 초)→ 獨一個人(1800년대 중반)→ 個人(1934)으로 변화했다. 일본의 경우 정부와 대립되는 막대한 권한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中村正直의 『自由之理』(1874)에서 Individual 을 4 글자의 한자어인 人民各箇으로 번역했다(이전까지는 2 글자 한자어가 주류). 이후 일본에서 Individual 에 대한 번역은 獨一個人(1875)→ 一個人(1881)→ 個人(1891)으로 변화한다. 1890년대에 이르러서야 일본사회에 “개인”이라는 말이 정착된다. 이처럼 하나의 개념어(個人)가 번역되고 정착되기 까지 30~40년이라는 긴 세월이 소요되었다. 한국의 경우 1900년대 초에 일본인들을 초빙하여 처음으로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당시의 교과서를 통해 일본의 번역어(個人)가 한국에 그대로 들어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明治시대의 번역과 한자어의 의의를 정리해보면 明治시대의 한자어를 통한 번역은 동양사회에서 서구문명을 수용하는 동력이었고 우승열패의 질서의 초석으로 작용하였다.

<Q&A>

Q. 번역을 통해 明治시대에 한자어의 숫자가 급팽창했다. 번역어가 일본의 언어문화 전반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 또한 이에 대한 기존 연구가 있는지?

A. 번역을 일본의 근대화와 연결시킨 연구 및 메이지시대의 번역과 현대번역에 대한 비교연구는 다수 있지만, 번역어가 일본어 전체에 미친 영향에 대한 기존연구는 없다.

Q. 메이지시대의 번역과 현대번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A. 메이지시대에는 한자어를 사용한 번역어가 많았고, 현대번역에는 가타카나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러한 차이는 현대인들의 한학에 대한 지식부족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 풍부한 한학지식이 없기 때문에 개념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가나카나를 통해 원어 그대로 표현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Q. 일본의 번역어는 중국으로부터, 한국의 번역어는 일본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번역어를 받아들인 과정을 좀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A. 한국의 경우, 일본의 번역어들이 변형 없이 직접적으로 들어왔다. 갑오개혁 이후의 개화지식인들 중에는 일본유학생들이 많았고,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 일본식이 최고라고 하는 인식이 강했다. 번역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무했던 한국의 지식인은 일본식 번역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 그 예로 1900년대 초 일본인들을 초빙하여 편찬한 최초의 한국 교과서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일본 번역어의 무비판적 수용은 정신적·사상적 종속이라는 부작용을 낳았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식 번역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Q. 번역을 통해 새로운 언어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한일간의 차이가 존재했는가?

A.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달리 번역에 대한 고민 혹은 번역을 위한 고통의 과정이 없었다. 당시 한국은 나라가 망해가는 국가적 위기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처럼 번역을 위한 국가적인 프로젝트나 체계적 지원은 기대조차 할 수 없었다. 선택의 여지 없이 일본의 번역어를 그대로 흡수했다.

Q. 라틴어는 서양언어(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영어 등)의 뿌리다. 한 언어가 다른 언어의 영향을 받아 형성·발전될 경우 표현력은 더욱 풍부해지기 마련이다. 번역어는 중국,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위의 논리에 따르면 한국의 번역어가 가장 풍성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A. 라틴어가 영어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는 유수의 세월이 존재했지만, 일본에서 한국으로 번역어가 들어오는 데는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았다. 비교수준이 전혀 다르다.

Q. 한국인들은 個人 이나 自由 등의 단어가 일본계 번역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한국의 교육과정에서 이를 부각시키지 않는 이유는?

A. 국어학에서는 일본계 한자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일본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기 때문이다.

Q. 유럽은 산업혁명을 통해 근대화가 시작되었고, 일본은 번역을 통해 근대화가 시작되었다. 한국의 근대화는 어떠했나?

A. 일본 근대화의 목적은 부국강병(富國強兵)이었다. 유럽과 비교했을 때 절름발이 근대화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제국주의 팽창이라는 일본의 의도적 목적에 의해 근대화가 시작되었다. 한국의 근대화 역시 일본의 영향을 받아 기형적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Q. 明治시대에 난학(蘭學)이 꽃을 피웠다. 난학의 눈부신 발전은 도쿠가와 막부시대부터 충분한 토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가능했다고 설명했는데 어떠한 기반이나 토양이 있었는가?

A. 1710년대부터 막부의 지시에 의해 난학이 시작되었다. 明治시대 훨씬 이전부터 난학은 정부를 통해 주도되었다. 이후 1774년에 번역된 네덜란드 의학서가 난학 발전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 일본인들은 이 의학서를 통해 난학이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의 문을 열어주는 중요한 통로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한다.